

지리학사 · 지리사상학사 *

— 향토 · 향토교육과 향토연구 —

野澤秀樹(노자와 히데키)** · 심정보(역)***

작년 말 분주하게 개정된 『교육기본법』 문제의 하나로 「우리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양성한다」는 문구의 도입이 있었다. 그것은 애향심(향토애) · 애국심을 내세웠던 전전(戰前)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향토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어나 자란 토지나 지방과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구체적이고 물질적 대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생활의 방식 · 습관, 구비, 방언이라는 사회문화적인 추상적 관념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추석 연휴 마지막에 발생하는 인구 대이동은 「향토」가 견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어린이들은 단지와 맨션에 살고, 지역(향토) 유대의 희박함이 지적되는 그들에게 「향토」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오시로 나오키(大城直樹) 등(郷土研究会編 『郷土-表象と実践』 嵯峨野書院, 2003)은 확실히 향토가 만들어지고/만들어진 것을 지적했다. 그것은 근래 근대 비판 중에서 국민국가 형성에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가운데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토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토지나 장소와 관련된 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들에 대한 표상, 관념은 지리적 상상력에 의해 구축되고/되어 온 것이다.

향토의 교육 · 연구라고 하면, 우선 전전 쇼와(昭和) 초기의 「향토교육운동」을 상기할 것이다. 분명히 이 운동은 향토교육의 정점을 이룬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오랜 향토교육 · 연구의 역사가 있고, 전체 역사 중에서 그 운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운동에 이르는 전사(前史)로서 두 가

지 흐름을 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근대 국가형성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향토교육운동의 직접 전신에 해당되고, 근대 국가형성을 위하여 국가(문부성)가 중심이 되어 행해져 온 교육(향토교육) 제도화의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 국가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농촌의 피폐 · 쇠퇴에 대한 민간인과 그 그룹, 즉 니토베 이나조우(新渡戸稲造)의 「지방연구」와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의 「향토연구」가 그것이다. 이 두 흐름이 교차한 곳에 쇼와(昭和) 초기의 「향토교육운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운동도 포함하여 향토의 교육 · 연구는 지리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리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흐름으로 향토와 교육과의 결부는 체험교육이나 직관교육 등 교육방법론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실천되었던 것이며, 지리교육에서도 그 시작은 「향토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향토교육이라 하더라도 향토를 방법으로서 중점을 둘 것인가? 혹은 목적으로서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전자는 인식력과 이해력을 주요 목적으로 한 향토교육이며, 후자는 정신함양과 인격완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 향토교육이다(外池智, 2004). 이러한 양면을 포함하여 시마즈 토시유키(島津俊之)는 「明治前期の郷土概念と郷土地理教育」(和歌山地理, 25, 2005)에서 「향토 개념과 여기에 관련된 사상과 실천이 언제쯤부터 일본의 교육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향토라는 말의 유래와 함께 향토교육의 제도적 규정 과정을 문부성과 기타 규정집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판된 저서 등을 찾아보

* 野澤秀樹, 2007, 地理学史・地理思想学史-郷土・郷土教育と郷土研究-, 人文地理, 59(3), 59-64.

** 일본 큐슈(九州)대학 명예교수

***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시간강사(ktxgut@naver.com)

는 등 아주 상세하게 추적하고, 메이지(明治) 중기에는 교칙과 교과서에 향토라는 말이 지리교육에서 제도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세키도 아키코(関戸明子)의 「群馬県における郷土教育の展開」(群馬大学教育学部紀要人文・社会科学編, 51, 2002)는 메이지(明治) 이래 군마현(群馬県)에서 향토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 두 번째 흐름으로 니토베 이나조우의 「지방의 연구」,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 및 양자가 결성된 「향토회」, 그리고 야나기타 쿠니오의 잡지 『郷土研究』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지리학에서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민속학 계통에서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의 비판적 재검토가 오늘날 새로운 비판적 학문의 방법을 초래한 계기가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佐藤健二 『読書空間の近代』 弘文堂, 1987 : 同 「郷土」, 小松和彦・関一敏編 『新しい民俗学へ』 せりか書房, 2002 : 同 「民俗学と郷土の思想」, 『編成されるナショナルリズム』(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2002 : 関一敏 「しあわせの民俗学・序説」(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1, 1993). 니토베 이나조우와 야나기타 쿠니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책임지고 일을 처리했던 연구회에는 몇 명의 지리학자가 관여되어 있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향토회에 관해서는 야마시타 코우이치로우(山下紘一郎)의 「郷土会とその人びと」(柳田国男研究会編 『柳田国男伝』 三一書房, 1988), 야나기타 쿠니오에 관해서는 츠루미 타로우(鶴見太郎)의 『柳田国男とその弟子たち』(人文書院, 1988) 등). 그 대표 격이 오다우치 미치토시(小田内通敏)와 마키구치 츠네사부로(牧口常三郎)였다. 오다우치 미치토시는 일찍부터 니토베 이나조우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야나기타 쿠니오의 모임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경력으로 오다우치 미치토시는 향토회를 창설한 계기를 만든 인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향토지리연구에 대해서는 오카다 토시히로(岡田俊裕)의 『日本地理学史論』(古今書院, 2000)에 상세한데, 세키도 아키코(関戸明子)는 「新渡戸稲造の『地方学』とその村落研究の思想」(奈良女子大学文学部研究紀要, 34, 1990)과 「昭和初期までの村落地理学研究の系譜」(奈良女子大学地理学研究報告 IV, 1992)에서 특히 오다우치 미치토시가 촌락(지

리) 연구 형성에 몰두한 니토베 이나조우의 『農業本論』·『地方学』 및 향토회와 향토회가 실시한 「内郷村調査」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 조사는 오다우치 미치토시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되며, 세키도 아키코가 논하고 있듯이 숙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키도 아키코는 야나기타 쿠니오의 「실패였다」는 이 조사의 평가 및 보고서 출판에 관해서 오다우치 미치토시와 대립이 있었던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그 문제도 포함하여 야나기타 쿠니오와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향토연구를 둘러싼 문제는 후술한다). 마키구치 츠네사부로와 야나기타 쿠니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래 사상사 관계에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鶴見太郎 『ある邂逅』(潮出版社, 2002) ; 村尾行一 『柳田国男と牧口常三郎』(潮出版社, 2007)). 향토회와 목요회 등에 가담하고, 야나기타 쿠니오의 문하생이기도 했던 도쿄대의 젊은 지리학자 사사키 히코이치로우(佐々木彦一郎), 야마구치 사다오(山口貞夫) 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竹内啓一 「地理思想史研究委員会の活動」, 空間・社会・地理思想, 1, 1988).

이상 국가의 시책과 결부된 교육 제도화에 있어서 「향토교육」의 흐름과 민간에 있어서 「향토연구」가 이를테면 교차하는 곳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1930, 31(昭和5, 6)년부터 시작된 「향토교육운동」이다. 이 운동은 국가(문부성)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구체적인 시책을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사 분야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근래 2개의 우수한 저작이 나왔다. 이토우 준로우(伊藤純郎)의 『郷土教育運動の研究』(思文閣出版, 1998)와 토노이케 사토시(外池智)의 『昭和初期における郷土教育の施策と実践に関する研究』(NSK出版, 2004)가 그것이다. 한편 문부성 촉탁으로서, 또 이 정책을 민간의 측에서 추진한 향토교육연맹의 조직자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운동을 주도한 중심 인물이 오다우치 미치토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운동은 지리학과도 깊이 관련된 문제였다. 그런데 상기의 두 저작물은 본 학회지 연간 전망 당해 연도(51권, 1999 ; 57권, 2005)의 「학사·방법론」, 「지리교육」 난(欄)에서 조금도 소개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두 저작물은 500 페이지에 이르는 우수한 연구서이며, 한정된 지면의 본

란에서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두 저작물 각각의 특징을 간략히 기록하여 지리학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들 자신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두 저작물 모두 현재까지의 연구사를 근거로 하였는데, 우선 향토교육이 1930, 31(昭和5, 6)년에 이르러 문부성의 정책과제(교육정책, 시책)가 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이토우 준로우는 정책이 구체화되기 위한 경비 재원의 출처를 밝히고, 토노이케 사토시는 이토우 준로우의 연구에 이어 향토교육이 구체적 시책으로 되기까지 제도적인 계보를 정성껏 추적하여 「교육의 실재화, 지방화」 교육정책이 향토교육으로 향했던 것을 밝혔다. 이토우 준로우는 또 종래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향토교육운동과 관련된 민간기관, 향토교육연맹의 활동에 대해서 기관지를 세밀히 조사한 결과 정설과는 달리 연맹과 문부성과의 협력 관계를 확인 하였다.

두 연구의 두드러진 차이와 특색은 이토우 준로우가 향토교육운동을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교육론」(「향토연구」)과 관련해서 보려고 한 것에 대해, 토노이케 사토시는 오다우치 미치토시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약간 다른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다. 최대의 차이는 1935(昭和10)년부터 시작된 「종합적 향토교육」과 그 구체화인 「종합향토연구」를 둘러싼 문제이다. 이토우 준로우는 이 기간에 「향토교육운동」의 변질을 볼 수 있었는데, 당시의 향토교육에서 향토의 사회경제적 현실보다 정신생활 동향의 인식 쪽이 중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종합향토연구」를 통하여 문부성의 향토교육은 향토에 · 애국심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1935(昭和10)년부터 「사범학교 교수요목」이 개정된 1937(昭和12)년을 향토교육운동의 말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토노이케 사토시는 문부성의 향토교육은 일관하여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지도하에 추진되어 1935(昭和10)년 4년 만에 새로운 경비가 교부된 「종합적 향토교육」에 의한 「종합향토연구」가 향토교육운동의 말하자면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고, 그것은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향토연구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토노이케 사토시는 오다우치 미치토시와 향토교육운동의 관계에 있어서 내재적 연구를 목적으로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향토교육론, 향토

연구론의 이론적 해명을 시도했고, 또 학문적 배경인 인문지리학과 주요 개념의 형성과정의 고찰 등 상세한(지리학적)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사범학교의 『종합향토연구』에 대해서 그 모델에 해당되는 야마나시현(山梨県)의 경우를 오다우치 미치토시와의 관련과 함께 향토교육과 그 실천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였다. 그것은 토노이케 사토시에 의하면, 전체로서 인문지리학적 시점을 중시한 향토연구였지만, 단지 객관적 관찰로서 향토가 아닌, 생활의 장소인 향토로서 향토연구를 중시한 것, 그리고 이것이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시점에서도 있었다고 보았다. 그 외에 『종합향토연구』가 편찬된 이바라키현(茨城県), 아키타현(秋田県), 카가와현(香川県)에 대해서도 야마나시현(山梨県) 만큼은 상세하지 않지만 소개되어 있다. 토노이케 사토시는 부제목에도 있듯이 이러한 「종합향토연구」를 향토교육운동에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이 연구가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지역연구 방법 - Le Play house와 Geddes에 의한 지역조사의 실천이며, 오다우치 미치토시가 말한 지역개념 - 지적혼일로서 지역적 실재 - 의 연구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지금 한번 지리학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종합향토연구』가 현(県)을 단위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은 문부성 예산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되지만).

한편 이토우 준로우는 이미 진술한 것처럼 향토교육운동을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와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 이것이 그의 책을 흥미롭게 하는 점이지만, 또한 문제도 그것과 관련된 것처럼 생각된다. 이토우 준로우는 유명한 야나기타 쿠니오의 「郷土教育と郷土研究」(『定本柳田国男集 第24巻』, 1970)를 둘러싼 향토교육운동 비판의 강연에서 그 결작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이 강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야나기타 쿠니오가 주장한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부성 계통 사람들(그 대표인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향토교육 · 향토연구와 야나기타 쿠니오가 추진했던 향토연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향토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자는 향토에서 일본인의 생활, 민족의 특정 단체로서 과거의 경력을 알려고 한 것이며, 이 때 후자는 각 향토인의 의식 감각을 꿰뚫어 알려고 하고, 그 결과를 비교 종합하면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문부성 계통 사람들의 향토연구는 각 향토에서 얻은

결과(성과, 지식)를 비교 종합도 없이, 그대로 곧바로 교육에 이용하려고 하여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토지 밖에 알지 못한 향토연구였으며, 그렇게 해서 향토교육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나기타 쿠니오는 문부성 계통의 「향토교육」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 비판은 지리학을 향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토우 준로우는 야나기타 쿠니오가 향토교육운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전제하에 향토교육운동과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와 여러가지 일치점을 도출하였다. 그 하나로 향토연구에서 향토를 국가와 결부시키려는 사고방식의 일치이다. 예를 들면, 지리에 있어서 「지방연구」에서 학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실지 조사」 = 비교의 기초 → 「사실과의 비교 관련」 → 「지역을 확대」 = 도 · 부 · 현(道 · 府 · 県) → 일본(→ 외국)의 방법론이 채택되고, 그것이 야나기타 쿠니오가 주장한 「향토에서 향토를」에서 「향토에서 일본을」, 나아가 「향토에서 세계를」로 이어지는 「향토연구」의 방법 그 자체라고 한다. 게다가 향토교육운동 말기에 해당되는 종합적 향토교육에 있어서 각 부 · 현의 종합향토연구는 향토교육의 「기초자료」이며, 이들을 비교 · 종합하여 「교육실천의 전국화」를 계획한다는 오다우치 미치토시의 사고방식은 야나기타 쿠니오의 「일국 민속학」의 논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토 준로우는 의하면, 종합적 향토교육과 종합향토연구는 향토애 · 애국심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토노이케 사토시가 분명히 한 것처럼 종합향토연구는 그 나름대로 향토(현/県 단위에서는 있었지만)의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따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키도 아키코(関戸明子)의 「戰時中の郷土教育をめぐる制度と実践」, 郷土研究会編, 上掲, 2003)에 의하면, 「향토교육운동」 이후 1941(昭和16)년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어 지리 교과는 크게 변화한다. 초등과 지리에 「향토의 관찰」이 설정되고,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용 「향토의 관찰」의 총설에 의하면, 「향토는 황국의 일부이며, 우리 나라의 축도(말줄 필자)이며, 향토의 사상을 관찰, 파악하는 것은 곧 우리 국토국세의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 국사의 일환으로서 향토의 인식에 이바지 한다. 향토애의 배양은 국토애호의 정신으로 확장(동일)되고, 황국사명의 자각을 양양시키는 것

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지리교육은 향토의 관찰에서 일본, 이어서 동아시아, 게다가 세계로 라는 동심원적 인식의 확대(동일)가 주장되고 있지만, 그 인식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진술되어 있지 않다. 그 원점인 「향토가 우리 나라의 축도」라는 명제도 논리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향토에서 처음 확대하여 국가에 이른다는 사고는 일찍부터 볼 수 있다. 세키 카즈토시(関一敏)에 의하면, 니토베 이나조우의 「지방의 연구」에서도 주장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 그 문제에 관해서 세키 카즈토시는 마키구치 츠네사부로우의 향토와 이론의 방법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세키도 아키코는 또한 「향토의 관찰」에 있어서 향토의 언설, 즉 향토를 국가에 결부시키고, 향토애를 애국심과 결부시키는 주장에 대해서 각지의 사범학교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그는 식민지의 국민학교에서 그 내용에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심정보(沈正輔)의 「文部省と朝鮮總督府の国民学校国民科地理に特設された郷土の觀察と環境の觀察の比較分析」(新地理, 51-2, 2003)은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 대해서 그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향토와 국가」, 「향토애와 애국심」을 결부시킨 논리성 없는 주장에 대해서, 최근 강상중(姜尙中)의 『愛國の作法』(朝日新聞社, 2006)은 명쾌한 논리로 답하고 있다. 강상중은 정치학자 D'Entrèves의 두 가지 국민의 존재형태, 즉 자연의 존재로서 「ethnos」(민족)와 인위의 산물로서 「demos」(시민)를 소개하고, 전자는 혈연, 인종, 혹은 미적 감성과 결부되어 향토와 국가는 자연스럽게 연속되며, 후자가 전자를 내포하는 「아름다운 국가로」라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 향토애가 애국심과 조국애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는 감성적 「ethnos」를 기초로 한 「민족」국가의 원리와 「demos」를 기초로 작위적인 의제(사회계약론)를 통하여 성립한 「국민」국가의 원리와 구별되지 않은 채, 전자로부터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실감되는 곳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태어나 자란 토지(향토)나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며, 보편적인 「人情」과 같이 생각되는 것은 강상중도 말한 것처럼, 또 우리들도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사실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향

토애와 애향심의 동심원적확대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고리를 끊는 열쇠를 강상중은 하시카와 분조우(橋川文三)의 『ナショナリズム/내셔널리즘』(紀伊國屋, 2005(1968))에 의거하면서, 「patriotism」과 「nationalism」의 차이부터 설명을 부여하고 있다(강상중은 직접 하시카와 분조우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시카와 분조우에 대해서는 온조우 아키오의 교시에 의함). 그에 의하면 「애향심」과 「향토애」, 혹은 「애국심」과 「조국애」는 모두 「patriotism」에 유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고향」과 「태어난 고향」(patria)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patriotism」(애향심, 향토애)은 nationalism과 같이 일정의 역사적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이념이 아니다. 「태어난 고향」은 본래 「부동성의 관념」과 결부된 관념인 것에 대해서, nationalism은 반대로 「고향이탈」(exile)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nationalism」을 수립함에 있어서 「태어난 고향」은 파괴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시카와 분조우와 강상중이 말한 것처럼, patriotism은 대규모 양식을 동반하는 조국애와 논리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원적(始原的)인 「향토애」와 「애국심」이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향토애와 애국심은 일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해졌지만, 애향과 애국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강상중은 이것도 하시카와 분조우에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미묘한 공생관계」에 있다고 했으며, 구체적 사례로서 위에서 고찰한 「향토교육」을 다루고 있다. 즉 위에서 「향토교육」이 설명된 것은 획일적인 「애국심」 등을 강제할 경우 공동화(空洞化)된 실감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애향」은 「애국」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장식을 입히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위에서 검토한 「향토교육」이 「교육의 실재화, 지방화」의 슬로건 하에 채용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으로도 용이하게 전환된 역사는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향토교육이 니토베 이나조우의 「지방의 연구」,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에 의해 시작된 것,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결부한 곳에 오다우치 미치토시가 있었던 것을 상술하였다. 이토우 준로우의 「향토교육운동」 연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와 관련이었지만, 그것은 전자를 주도한 오다우치 미치토시와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의 문제에도 있었다고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토교육운동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오랫동안 두 사람의 향토연구를 둘러싼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를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과제인 듯한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자 한다.

니토베 이나조우를 중심으로 야나기타 쿠니오가 간사 역할을 맡았던 「향토회」는 농정적인 문제(인문지리적 문제도 여기에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오다우치 미치토시는 니토베 이나조우와 야나기타 쿠니오의 農政學-『농업본론』과 『시대와 농정』에서 지리학을 배웠던 것을 말하고 있다)와 민족적인 문제의 양면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모임의 기록을 보면 전자의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 야나기타 쿠니오는 향토회와 병행하여 잡지 『郷土研究』를 간행하였고, 이 방면에 민족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게재했다(이 잡지가 취지에 반대되는 민족적인 내용에 편중된 것에 대하여 미나카타 쿠마구수(南方熊楠)의 비판이 있었고, 양자의 서간 대결은 잘 알려져 있다). 요약하면 「향토연구」에는 지방(향토)의 농정적, 인문지리적 문제와 민족적 문제가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야나기타 쿠니오는 근처에 민족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 차이가 명백하게 된 것이 상술한 「향토교육(운동)」이었다. 야나기타 쿠니오는 향토교육에 대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위의 강연에서 볼 수 있듯이 야나기타 쿠니오에 있어서 「향토교육」(오다우치 미치토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의 생각하는 방법이 야나기타 쿠니오의 그것을 공유한 것이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향토교육」을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리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그러한 향토교육이 야나기타 쿠니오가 구상했던 「향토연구」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후술하는 것처럼 방법론상의 문제이며, 아마도 그것이 기본적 문제였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제도화에 대한 학문적 논쟁 또는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상상된다.

후자는 아직까지 가설이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민족학이 교육연구의 제도화에서 뒤진 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구미 선진 제국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일이다. 「향토교육」이 제도화의 하나의 기회였

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야나기타 쿠니오는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진술하는 것은 삼가하지만, 야나기타 쿠니오가 지리학에 비판인 듯한 언사가 그와 같이 추측시킬 뿐이다.

한편 방법론상의 문제는 야나기타 쿠니오가 위에서 다루었던 「향토교육과 향토연구」에서도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향토연구 관계의 저서(『郷土生活の研究』, 『民間伝承論』, 『地名の研究』 등)에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듯이 향토연구의 방법으로서 문제, 상기의 강연 논문에서 말하면, 「향토인의 의식 감각을 꿰뚫어」라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 당시의 지리학(오다우치 미치토시)에서 그 방법은 민속학의 방법으로 이해되었던 것은 아닐까? 오다우치 미치토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리학은 구체적인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과학이며, 향토(지역)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되고, 향토연구는 지리학(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에 속하고, 야나기타 쿠니오가 말한 향토연구는 민속학이었고, 그

것을 구태여 향토연구라고 제창한 것에 대해서 오다우치 미치토시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리학은 야나기타 쿠니오의 향토연구(민속학적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야나기타 쿠니오의 슬하에 있던 지리학자의 생각처럼 새삼스럽게 지리학과 민속학의 향토(지역) 연구 본연의 문제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상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앞의 본란에서 다루었던 쿠마가이 케이치(熊谷圭知)의 「地域研究」(人文地理, 52-3, 2000)와 같은 종류의 문제를 느낀다.

최초투고일 : 2007. 11. 17.

최종접수일 : 2007. 12. 06.

교신 : 심정보, 110-873,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3번지
경희궁의 아침 4-1412
(ktxgut@naver.com)

Correspondence : Jeong-Bo Shim, ktxgut@naver.com